

서민적 정서 풍기는 우리 제본의 미학

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,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. ●

〈출판저널〉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

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● ●



장황지(裝黃志)
13.9x 18 mm
만지무늬 능화판 표지
천으로 씌운 포갑

백순덕 | 렉토베르소 (www.rectoverso.co.kr) 대표

1997년, paris1 대학의 예술사 D.E.A(박사준비과정)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. 예술제본 실기는 웬만큼 했다 싶어 이론적 기반을 갖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. 나는 논문주제를 《19세기의 프랑스 제본과 한국 제본의 비교》로 정하고 귀국한 후 자료를 구하러 다녔다.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. 이후 '한국제본'은 내게서 멀어져 갔다.

프랑스 제본을 정리하며 한국식 제본을 언뜻 보게 되었다. 그동안 자료나 정보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접어두었던 한 장 제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. 표지에 쓰이는 능화판 장식의 다양함, 그 장식들이 갖는 의미들. 특히 서양제본이 특수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의 책제본은 다분히 민간신앙이나 서민적 정서가 표현되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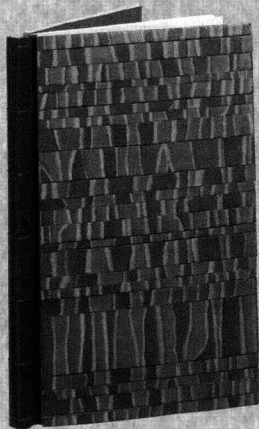
유럽에서는 《일본식 제본 Reliure à la Japonaise》이라는 이름으로 동양식 제본을 응용하여 서양책에 접목시키고 있다. 동양 정서에 많은 매력을 느끼는 유럽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양식의 제본은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
그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. 그동안 정신없이 예술제본의 자리매김을 위해 달려 왔지만 정작 중요한 작업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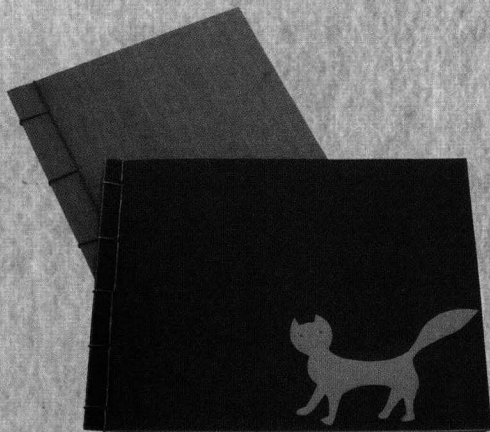
오침안정법의 안정된 바느질 위에 장인의 혼을 다해 제작하는 능화판 문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제본. 이제 서양제본과 함께 우리의 제본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듯하다. 남의 것을 열심히 보다보니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하나 보다. ✨



아코디언 제본
 코르크 위에 한자 텍스트
 58.5x9.5mm
 각 코르크의 연결은 염소가죽을
 0.2mm로 얇게 저민 후 합성풀로 이어줌.



「L'hiver en chaude maison」
 12.5 x 19.5 mm
 일본식 제본, 1988년 작
 하바나 염소가죽
 밤색 계열 염소가죽의 살갓면(가죽 안쪽)을 따로 장식.
 가죽을 얇게 저민 후 종이 위에 수직으로 겹쳐 붙인 기법.
 원래의 텍스트 대수마다 별도의 띠지를 붙여
 띠지를 위에 꿰매는 방법.



한국식 제본의 실습
 비단표지의 화선지노트
 오침안정법